

속성은 정말 술어일까?:

백도형의 『심신 문제』에 대한 후형적 물리주의자의 응답[†]

한 우 진[‡]

백도형은 그의 저서 『심신 문제』에서 속성 이원론, 제거론, 환원론 등 심신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비판한다. 그는 동시대의 논의가 데카르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심적 속성을 보편자로 보기 때문에 심신 문제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백도형은 대안으로서 유명론 또는 4차원 개별자론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찰머스(Chalmers, D.)의 좀비 논증에 대한 최선의 응답으로 발전해 온 후형적 물리주의(A Posteriori Physicalism)를 간과하고 있다. 후형적 물리주의자는 존재적 환원을 최선의 물리주의로서 가정한 후 심신 문제를 인식론 차원에서 설명해 내고자 노력한다. 나는 후형적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면 굳이 유명론이나 개별자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논증한다.

【주요어】 심신 문제, 속성, 유명론, 의식, 물리주의, 백도형

[†] 본 연구는 2017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whan@duksung.ac.kr

1. 해묵은 난제와 새로운 전망

심신 문제는 더 이상 참신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철학적 주제이다. 백도형은 그의 저서 『심신 문제』에서 이를 새롭게 진단한다. 심적 속성이 어떻게 두뇌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온 철학자들은 속성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의 논의에는 의외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오랫동안 속성을 연구해 온 그는 기존의 심신 이론가들이 심적 속성을 일종의 보편자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며 동시대 심리 철학도 여전히 데카르트의 영향 하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심신 문제가 미국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재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당대를 풍미하던 비환원적 유물론을 공격하기 위하여 배제 논증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르면, 심적 속성의 독자적인 인과력은 형이상학의 보편적인 여러 가정과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배제된다. 결국 심적 속성은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하거나 그림자와 같이 물리 속성에 그저 매달려 있는 부수현상일 뿐이다. 오랫동안 김재권의 지도를 받아 온 백도형은 우선 배제 논증을 통해 속성 이원론을 거부한다(3장). 그는 심적 속성이란 아예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제거주의도 거부하며(4장) 김재권의 환원 모형도 거부한다(5장). 기존의 대표적인 심신 이론들을 선택지에서 제거한 백도형은 심적 속성을 보편자가 아닌 술어로 본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김재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다. 그는 김재권의 속성에 대한 견해가 암스트롱(Armstrong 1983)의 보편자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5장). 둘 사이의 공통적인 형이상학적 기반을 찾아내는 통찰과 치밀한 분석은 그의 저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덕분에 김재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 필자는 왜 자연법칙에 대해서는 암스트롱의 직관을 자연스럽게 따랐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심리 철학에서 1990년대는 ‘의식’의 10년이였다. 의식의 신경상관자가 발견된 이후 반물리주의의 기치를 높이 세운 찰머스(Chalmers 1996)가 줌비 논증을 제시했고, 잭슨(Jackson 1986)의 지식 논증과 네

이글(Nagel 1974)의 주관성 논증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물리주의자의 노력이 이어졌다. 김재권 (1998)은 의식 문제가 자신이 발전시켰던 심성 인과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인지하고서 기능적 환원 모델을 내놓았다. 백도형은 이원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재권의 배제 논증을 받아들이지만 기능적 환원에는 부정적이다(7장). 그는 환원의 아이콘이었던 김재권이 후에 의식만을 제외한 심성의 환원에 만족하게 된 것도 결국 심적 속성을 보편자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동시대 물리주의자들이 이원론을 비판하며 데카르트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백도형의 지적이다(8장). 심적 속성이 술어가 아닌 보편자임을 가정한 것은 데카르트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이다.

김재권은 초기 분석철학의 가장 큰 흐름인 언어적 전회(轉會)에 맞서 형이상학을 재건하고자 분투해 왔다. 그는 언어적이고 인식적인 설명 이전에 실재가 먼저 존재한다는 설명적 실재론(explanatory realism)을 제안했다. 그러나 백도형은 심신 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며 데이빗슨(Davidson 1970)의 유명론을 따라 심적 속성이 단지 술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장). 이는 김재권의 역방향으로, 즉 언어적 전회로 회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공간 속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 대신에 개별자가 남는다. 이 개별자는 그 자체로 정신적이지도 물리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관점에 따라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서술될 뿐이다.

그러나 속성 이원론과 제거론을 거부하면 유명론이 따라 나오는가? 남은 선택지인 환원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이후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환원에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환원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환원론이나 동일론에 의하면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동일하다. 대다수의 환원론자들은 속성 이원론을 거부함과 동시에 제거론에도 매우 비판적이다. 환원은 제거와 다르다. 환원은 오히려 상위 수준의 설명력을 보존한다. 심적 속성의 인과력은 물리적 속성의 인과력에 의해 보존된다. 어느 심적 속성이 다른 심적 속성을 야기했다는 인과적 설명도 물리적 속성 사이의

인과적 설명에 의해 해명된다. 그렇다면 심신 문제의 해결 전망에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가 없으며 굳이 개별자 동일론이나 유명론으로 갈 필요도 없다. 결국 백도형의 야심찬 시도가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유명론을 선택할 당위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종의 환원적 물리주의자인 필자는 그 필요가 없다고 논증할 것이다.

2. 이론적 타협물

필자와 같이 김재권을 통해 심성 인과의 문제를 접한 심리 철학자에게 데이빗슨의 직관은 단지 이론적 타협물과 같다. 유명론이나 개별자 동일론을 논박할 결정적인 논증은 없지만, 이를 굳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믿음, 욕구와 같은 명제적 태도는 술어와 잘 연결된다. 그러나 감각질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지시될 뿐이라고 가정된다. 물론 감각질이라는 속성이 술어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잘못일 수 있으나 이는 적어도 우리의 직관에는 잘 들어맞는다. 정신적이거나 물리적 술어로 기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개별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개별자가 어떻게 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의식과 신경상관자 사이의 법칙적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이때 과학자들도 보편자로서 속성이나 사건 개념을 가정하는 것 같다. 유명론이 이와 같은 과학의 성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백도형 (2014)은 3장에서 정신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김광수, 이승중, 소홍렬의 논의를 비판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들은 대다수의 심리 철학자들과는 달리 정신의 자율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주류 심리 철학을 환원주의라고 공격해 왔다. 그러나 백도형은 정신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근거는 대개 주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일례로 김광수는 정신의 자율성이 심리 철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피설명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사실인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면 차라리 유물론을 포기해야 한다

고 말한다.¹⁾ 물론 이와 같은 단정적인 선언은 불만족스럽다. 정신의 자율성이 과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가? 자유 의지를 부인하는 강한 결정론은 아예 틀린 이론인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환원은 방향 설정부터 잘못된 견해인가? 자율성이 우선이므로 차라리 유물론을 포기하라는 말은 자율성의 해명이 유물론의 궁극적인 과제라는 주장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 물리주의자들은 자유 의지나 현상적 의식이 물리주의자들이 설명해 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겠지만 따라서 이것들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백도형이 대폭 수용하는 데이빗슨의 심신 이론은 자연 법칙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심성의 자율성을 가정하고 있다. 칸트는 인간을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데이빗슨 (1970)에 의하면 칸트는 "자유가 무법칙성을 함축한다"고 보았다.²⁾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 또는 개별자 동일론은 인간의 자율성에서 비롯하는 무법칙성을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과 양립시키려는 이론적 타협이다. 문제는 인과가 대개 법칙을 함축한다는 것에 있다.³⁾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철학자가 보기에는 데이빗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김광수와 백도형 사이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광수는 단지 자율성이 기 사실이며 심리 철학의 피설명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백도형의 김광수에 대한 비판은 그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물론 정신의 자율성을 신념으로서 강변하는 것과 자율성과 물리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시도로서 유명론을 채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환원론자에게는 심성의 자율성 자체가 심각한 도전거리이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를 당연하게 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이글(Nagel 1979)의 교량 법칙에 의한 환원은 법칙성을 당연하게 여긴다. 법칙적 수반은 속성 이원론과

1) 김광수 (2003). pp. 7-8.

2) Davidson (1970), p. 107.

3) Ibid., p. 108.

양립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칙적 수반보다 더 강한 논리적 또는 형이상학적 수반이나 아예 동일론을 내세우는 물리주의자들은 법칙적 심신 관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뿐,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법칙적 심신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대다수 환원론자의 눈에는 데이빗슨의 칸트 이해에서 볼 수 있듯이 심성의 자율성과 무법칙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자율성 당연하게 전제하는 김광수와 데이빗슨의 무법칙성을 수용하는 백도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을 상정하고서 이를 환원하려고 노력하는 물리주의자나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한 채 이를 물리주의와 양립시키려는 유명론이나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가정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환원론자는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을 상정했으며 유명론자는 인간의 자율성과 더 나아가 술어로서만 기술되는 무엇인가, 즉 개별자를 상정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정합적 개념들이다. 그러나 개별자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명론을 택하는 것은 데카르트를 피하고자 더 설명이 어려운 존재적 가정으로 도피하는 일이 아닐까?

3. 화제중립적 분석과 유명론

백도형은 속성의 환원이 존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차원의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6장). 네이글(Nagel 1979)의 동질적 환원, 즉 같은 이론 내에서 용어의 환원이 언어적 환원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이질적 환원, 즉 다른 이론 사이의 환원은 각 이론의 용어나 법칙들 사이에 성립하는 교량 법칙을 요구한다. 용어 사이의 교량 법칙이 결국 용어에 대응하는 존재(속성이든 대상이든 법칙이든) 사이의 법칙적 동연성(co-extensiveness)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느 환원 모델을 택할 것인가는 속성을 언어적으로 보느냐, 존재적으로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필자는 심적 속성을 언어적으로 보면 동질적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심적 속성의 이론, 특히 감각질

이론은 현상학이다. 이는 신경생리학과 완전히 이질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환원 모델은 교량 법칙에 의한 이질적 환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속성을 존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백도형은 같은 대상이 서로 다른 두 뜻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한 프레게(Frege, G.)를 언급하며 속성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술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성을 이해하는데 언어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고 속성이 곧 술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프레게의 서로 다른 뜻은 두 뜻이 대응하는 동일한 대상을 전제한다.

20세기 중반 스마트(Smart 1959)와 플레이스(Place 1956)는 심적 속성이 두뇌 과정과 똑같다는 동일론을 제안했다. 백도형은 이에 대한 논란을 점검하며 동일론을 비판하던 철학자들이 주로 언어적 접근을 통해 논증을 전개했음을 지적한다. 당시 논리 경험주의의 영향을 생각하면 언어를 통해 심적 속성에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백도형은 더 나아가 동일론자인 스마트도 화제중립적 분석을 통해 동일론을 언어 차원에서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마트가 심적 속성을 언어에 의해 정의한 것은 아니며, 백도형의 비판은 화제중립적 분석에 대한 과도한 해석에서 비롯한다. 스마트가 언어적 장치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에 큰 존재적 의미를 두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동일론의 동기는 매우 단순했다. 법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법칙적으로 그저 매달려 있는 것(the nomological dangler)’으로서 의식의 독립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마트(Smart 1959)는 오캄의 면도날에 호소하여 동일론을 존재적으로 정당화한다.⁴⁾ 그는 주로 개념과 언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반론들을 프레게의 제시 양식의 차이를 활용하여 언어 차원에서 답한다. 언어 차원의 문제 제기를 언어 차원에서 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스마트가 검토하는 첫 반론은 다음과 같다. 시골 촌로는 자신의 감각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지만 신경과학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다. 어떻게 하나를 알고 다른 것을 모르는데 동일론이 성립하는가? 이러한

4) Smart (1959), p. 142.

인식론적 반론은 쉽게 대답이 가능하다. 새벽별과 저녁별은 동일하지만, 누군가는 둘 중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을 모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각은 두뇌 과정일 뿐이지만 시골 촌로는 감각만을 알고 두뇌 과정을 모를 수 있다.

스마트가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반론은 블랙(Black, M.)에 의해 주어졌다. 블랙은 두뇌의 특질과 감각의 특질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감각이 두뇌 과정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질을 언급한 것을 보면 블랙의 반론은 언어적이라기보다 존재적이다. 스마트는 이에 답하기 위해 화제중립적 분석이라는 언어적, 개념적 장치를 도입한다. 이는 오렌지색 잔상의 특질을 표현할 때 ‘느낌’같은 이원론의 용어나 ‘두뇌 과정’과 같은 동일론의 용어를 모두 제거하고서 ‘내가 오렌지를 볼 때, 바로 이것’과 같이 심신 이론으로부터 중립적인 표현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렌지색 잔상을 직접 지시하는 일종의 지시어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론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다. 저자는 스마트의 제안이 동일론도 결국 언어 분석에 기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제중립적 분석은 감각의 질적인 측면과 물리적 측면 사이의 인식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며 언어 분석이 감각의 전부라는 적극적인 제안은 아니다. 이는 물리주의적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적 개념들을 개념 차원에서 설명해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스마트 그 자신도 화제중립적 분석이 “감각이 속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⁵⁾ 스마트의 의도는 그가 “감각이 이러 저러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속성들을 직접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⁶⁾ 즉 감각 속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상적 용어로 말하지 말자는 제안일 뿐이다. 화제중립적 분석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이 언어적 분석이라서가 아니라 화제중립성이 결국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렌지를 볼 때, 바로 이것’이라는 표현 자체는 중립이어도 그 지시체가 특정 이론에 따라 심적 속성과 두뇌 속성으로 서로 다르다면 의미론적

5) Ibid., p. 150.

6) Ibid., p. 150.

중립성은 요원하다.⁷⁾

화제중립적 분석은 암스트롱의 선험적(a priori) 동일론 또는 선험적 기능주의와 연결된다. 암스트롱은 화제중립적 분석을 기능적으로 변형했다. 고통은 가시에 찔렸을 때 “아아!”라는 반응을 야기하는 내부 상태로 정의된다. 고통의 기능 분석은 특정 두뇌 속성, 이를테면 C-섬유 자극에 의해 실현된다. 남은 단계는 고통을 기능 분석을 통해 C-섬유 자극으로 환원하는 절차이다. 이 선험적 환원은 개념 분석에 의해 마치 함축 관계의 이행성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스마트의 화제중립적 분석이나 암스트롱의 개념 분석 모두 감각에 대한 언어 분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듯 “화제-중립적 분석에 의한 심신 동일성 논변은 존재 범주로서 속성의 위상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논문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초반부에서 스마트는 동일론을 제시한 후 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반론에 답하며 이원론의 직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화제중립적 분석도 적극적인 동일성 논증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신비의 원천인 설명적 틈새(the explanatory gap)를 해소하는 대답 중 하나이다. 즉, 스마트는 의식의 신비와 설명적 틈새를 언어와 개념 차원에서 설명해서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존재적 동일성에 위협이 되지 못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암스트롱의 기능 분석은 그의 선험적 동일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통이 개념적으로 분석되고 정의된다고 해서 암스트롱이 고통을 숨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통을 입력과 출력을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내부 상태로 정의한다.

4. 의식과 물리주의

백도형은 심성 인과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지은 후 본격적으로 의식

7) 한우진 (2008c).

문제에 접근한다(7장). 이는 김재권의 지적 여정과 유사하다. 백도형은 의식의 반물리주의를 표방하는 잭슨, 르빈(Levine, J.), 찰머스, 네이글(Nagel, T.) 등의 논증을 검토한다.⁸⁾ 잭슨(Jackson 1986)은 선천적 색맹이었다가 처음으로 빨간색 경험을 하는 사람은 현상적 경험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물리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적 지식과 이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백도형은 지식 논증이 단지 지식, 즉 인식 차원의 논의일 뿐이므로 반물리주의를 위한 존재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득력 없는 낫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역설한다.⁹⁾ 고통이 어떻게 특정 신경 상태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르빈(Levine 1984)의 ‘설명적 틈새’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

백도형은 동일선상에서 김재권(Kim 2005)이 결국 의식을 물리주의의 영역 밖에 남겨두어야 했던 고충에 대해 논의한다. 환원의 아이콘이자 수호자였던 김재권은 그의 저서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에서 놀랍게도 좀비 논증을 받아들여 감각질의 비환원성을 인정함으로써 후학들을 당황하게 했다. 찰머스는 당시 그의 블로그에서 김재권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이원론자의 시각에서 의식의 환원을 포기하는 것은 ‘물리주의에 충분히 가까운 것’이

8) 비환원적 유물론자인 데이빗슨이 그러했듯이 잭슨, 르빈, 찰머스 등 대표적인 반물리주의자들은 특정 종류의 수반을 인정한다. 수반은 물리주의의 최소 요건이다. 따라서 심신 수반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일종의 물리주의자 또는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환원론과 물리주의는 다르다. 수반과 환원도 다르다. 그렇다면 특정 수반을 인정하고 환원을 거부하는 잭슨, 르빈, 찰머스 등은 엄밀히 말해서 반물리주의자라기보다는 반환원론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범칙적 수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 또는 형이상학적 수반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수반과 환원 사이의 차이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듯하다. 이 경향에는 찰머스와 잭슨의 기여가 컸다. 이후로 물리주의는 동일성이나 환원과 쉽게 연결되곤 한다. 본 글에서 물리주의는 일종의 환원을 함축하며 비환원적 유물론은 반물리주의에 해당한다.

9) 백도형 (2014), p. 315.

아니라 ‘속성 이원론에 충분히 가까운 것’이다. 백도형은 김재권의 사례처럼 의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적 속성의 엄밀한 형이상학적 규정이 없는 상황과 연결한다. 김재권(Kim 2005)이 속성 이원론을 감각질에 대해서는 결국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설명적 틈새에 있다. 결국 설명적 틈새나 지식 논증은 모두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것으로 반물리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원론자들은 중국에 존재론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큰 틀에서 백도형의 시각에 동의한다. 이원론자건 물리주의자건 심각한 존재론적 논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설명적 틈새는 환원의 가장 큰 장벽이다. 찰머스, 르빈, 김재권(Kim 2005) 등은 특정 두뇌 과정에서 가려움이 아닌 고통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물리주의는 형이상학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재권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창발론은 심적 속성의 독립성을 고수한다. 따라서 단지 인식 차원의 문제 같았던 설명적 틈새는 심각한 존재적 함축을 가진다.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이 바로 설명, 즉 인식의 문제가 결국에 존재의 문제와 연결됨을 잘 드러낸다. 김재권(Kim 1998)은 암스트롱을 따라 개념 분석을 통한 기능주의를 환원의 주요 도구로 삼는다. 그 이유는 바로 설명적 틈새에 있다. 의식이 심물 법칙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두뇌 과정과 바로 동일시된다면 이는 심신 관계를 설명되지 않은 맹목적인 것으로 남겨두게 된다. 동일성 자체가 일종의 설명일 수 있으나 왜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고서 동일성을 전제하는 한, 동일론은 둘이 같으니까 똑 같다는 동어반복의 험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의식의 기능적 정의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고통이 왜 특정 두뇌 과정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된다. 이 설명을 통해 환원이 이루어지므로, 또 설명이 없으면 환원이 불가능하므로 설명적 틈새가 존재론과 유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재권의 통찰이다.

더 나아가 잭슨(Jackson 2000)과 찰머스(Chalmers 1996)는 이차원 의미론(two-dimensional framework of semantics)을 활용하는 물리주의를 제안한 후, 이를 비판함에 의해 이원론을 전개했다. 이차원 의미

론은 선형적인 개념 분석이 존재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정교하게 뒷받침한다. 이차원 의미론을 통해 언어와 설명의 문제 같았던 개념 정의가 의식의 존재론과 연결된다는 논증이 바로 잭슨과 찰머스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이다. 그런데 백도형은 이들 주장의 결론만을 가지고 존재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념이 개입하면 진정한 존재론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과 이원론을 단칼에 배제 논증으로 비판하는 것은 명쾌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준다.

물론 백도형이 인식적 요소에 의한 의식의 존재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다. 왜 의식만 인식론에 의해 접근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의식에 접근할 때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흐려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의식은 주관적이고 내적이라서 인식적 접근이 불가피한데 왜 이를 속성으로서 규정하는가? 다른 존재와 달리 의식만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김재권(Kim 1998)은 사회, 생명체, 일상 사물과 같은 거시 존재자가 각각 미시물리적 존재로 환원되는 것과 심신 환원은 다르다고 본다. 반면에 백도형은 자신의 저서의 부제인 ‘인간과 자연의 형이상학’과 일관적으로 심신 환원이 존재자 일반의 환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일반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어떻게 여러 존재 계층들 중 ‘심신 문제’라는 … 문제만이 존재론의 유일한 문제일 수 있으며, 그중 **정신**의 자율성만이 유일하게 옹호해야 할 자율성이란 말인가? … 이제 우리는 형이상학을 인간 중심에서 존재 세계 일반으로 확장시켜서 논의해야 하고, 심신 문제는 형이상학 일반의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한동안 속 시원한 논의의 진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심신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백도형, 2014, p. 157. 강조는 원저자)

하지만 이는 심신 문제를 사소하게 만드는 듯하다. 마음만의 고유한 특성들 때문에 심신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어 왔는데 마음이 다른 대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심신 관계는 신비도 아니고 아무런 문젯거리도 아니다. 왜 심신 문제가 그토록 특별한 것이었을까?

거시물리 대상과 생물학적 속성은 미시물리학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이미 자연계 내에 존재한다. 사회와 문화, 역사도 마음 외부의 것이다. 심신 문제는 심적 속성이 외부 대상과 다른 본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 왔다. 적어도 의식의 주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저자는 왜 의식만이, 그리고 심신 문제만이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심성이 자연계의 속성과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데카르트적인 가정이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면, 둘이 유사하다는 견해도 추가 논증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일반화 논증을 받아들이면서 심성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적 틈새나 주관성과 같이 심성만의 고유한 특성은 우리의 심성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여타 형이상학적 존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이 특성은 단지 인식 차원에서만 발견된다. 존재적 환원은 심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의 인식적 특성들과 일반화 논증은 일관적이다. 심성이 그토록 특별하다는 것은 오직 인식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백도형이 역설하듯 설명이나 개념 같은 인식론의 문제보다 존재론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에 필자는 이의가 없다. 이는 김재권의 설명적 실재론과 일치한다. 환원론자는 굳이 존재적으로 독립적인 감각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네이글(Nagel 1979)의 동질적 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 분석을 받아들여 선험적 환원을 추구하는 선험적 물리주의자와 달리 후험적(a posteriori) 물리주의자는 이질적 환원과 유사한 존재적 환원이 현재 주어진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낫기에 이를 전제로서 받아들인다.¹⁰⁾¹¹⁾ 후험적 물리주의자는 설명적 틈새, 의식의 주관성과 신비를 모두 인정하며 이 특성들이 물리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의식의 모든 신비로운 요소들은 단지 인식 차원에서만 인정될 뿐이며 감각질은 두뇌 과정으로 환원된다. 심성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후험적 물리주의자들이 제거론자처럼 심적 속성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10) 한우진 (2007).

11) 페리(Perry 2001)는 후험적 물리주의를 ‘전건 물리주의’(Antecedent Physicalism)라고도 부른다.

없다. 환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심성의 존재를 확인해준다. 열이 평균분자운동에너지로 환원된다고 해서 열이 제거되는가? 물이 H_2O 라고 해서 H_2O 만 있고 물은 없는가? 거시 속성이 미시 속성으로 환원되면 거시 속성은 사라지는가? 이와 같이 후험적 물리주의는 속성 이원론과 제거론을 모두 배제한다는 점에서 백도형의 견해와 일치한다.

문제는 심성의 자율성에서 시작한다. 유명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심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왜 심성만이 자율성을 가지는가? 물론 심적 속성들은 다른 속성보다 상대적으로 언어적이라고 볼 여지를 지니는 것 같다. 마음의 주요 작동 원리는 언어에서 찾아진다. 그래서 심신 환원에는 언어가 개입할 법도 하다. 그러나 유명론은 자연계의 속성들에게도 적용된다. 백도형은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언급하면서 실제의 객관성을 부인한다.¹²⁾ 그러나 실재가 100%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자 개념을 채택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관찰의 문제는 인식론의 문제이며 실제 개념과 일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속성이 언어적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다른 물리적 속성들도 인간 주체에 상대적이며 술어로서만 의미를 가지는가? 인식 주체가 없다면 물리 속성은 사라지고 개별자만 남는가? 인식 주체가 존재해도 언어가 없다면 물리 속성도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물체의 본래 속성인 질량이 인식 주체가 없을 경우 술어화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4차원 개별자론을 제안한다. 그러나 공간에 시간 차원까지 갖는 개별자, 즉 바로 그 순간에만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상정되는 개별자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 존재를 논하는 과정에 언어가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존재자에게서 언어의 개입이 의심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면 결국 투명한 뼈대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상정물로서 개별자만이 남는다.

12) 백도형 (2014), p. 302.

5. 데카르트의 유산과 유명론

백도형은 데카르트의 유산이 현대에도 지속되기에 심신 문제가 난제로 남게 되었다고 진단한다(8장).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지적이며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보편자로서 실재하는 심적 속성을 인정하면 환원 자체가 어려워지기에 심신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에 환원은 속성의 정의에서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수반 개념이 제시되었으나 1990년대 심신 문제에 수반을 적용했던 대다수의 시도들은 유효한 물리주의를 보장하지 못했다.¹³⁾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여러 주류 철학자들, 특히 후험적 물리주의자들의 분투에 의해 발전해 왔던 개념적 이해를 뒤로한 채 데이빗슨의 길을 따르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데카르트를 피하자고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을 포기하자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에 해당한다. 굳이 이론상의 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개별자 동일론은 그 자체로 정합적이기는 하나 매력적인 도피처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심신 이론들이 데카르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존재적 속성으로서 현상적 의식과 이에 대한 서술을 혼동하고 있는 것¹⁴⁾일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용-언급 혼동과 유사한 오류를 그동안 범해온 것일까? 심신 이론가들은 존재적 속성에 대해 논해왔으면서 결국 언어적 논의에 그쳤으며¹⁵⁾ 이것이 바로 속성과 술어를 혼동하는 오류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아무래도 의식 세계에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 현상적 속성이 함축하는 문제들, 예컨대 설명적 틈새, 현상적 의식과 접근 의식의 구분, 주관성 등도 결국에 이원론이나 물리주의와 같은 특정 이론의 영향 하에서 언어에 의해 개념화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편자로서 심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언어로 접근한다고 속성이 곧 술어인 것은 아니다. 심성이 언어에 의해 개념

13) 한우진 (2008a).

14) 백도형 (2014), p. 360.

15) Ibid., p. 360.

화되고 이에 따라 속성의 존재론이 이미 이론에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속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가 아닐까? 이는 역으로 술어와 속성의 혼동에 해당한다.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속성이 과연 보편자인지 술어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¹⁶⁾

앞서 말했듯이 후험적 물리주의자들은 독립적인 심적 속성이 따로 없다고 본다. 심적 속성은 물리 속성과 동일하거나 환원가능한 것일 뿐이다. 단지 개념상의 간극으로서 설명적 틈새나 현상적 의식 개념, 주관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간극만 언어에 의해 해소하면 될 일이다.

6. 후험적 물리주의

백도형의 현 심신 문제에 대한 진단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거의 모든 가능성이 탐구되었음에도 심신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으며, 뚜렷한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환영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범심론이나 양자역학 기반의 이론 등도 논의되고 있다.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유명론도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험적 물리주의자가 보기에 백도형의 진단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성과가 아쉽게도 빠져있다. 그는 5장에서 김재권의 국지적 환원과 기능적 환원을 비판했기에 물리주의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제거론뿐임을 지적한다. 제거론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그는 아예 발상을 달리하여 유명론 또는 개별자 동일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1990년대 찰머스외의 줌비 논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요 물리주의 이론으로 떠오른 후험적 물리주의는 기능적 환원을 거부하며 동시에 속성 이원론과 제거론도 거부한다. 후험적 물리주의는 개념 분석을 통하지 않는

¹⁶⁾ 최훈 (2004)도 고통이 독자적인 인과적 효력을 가지는지를 과학이 알려주기 전까지 심적 속성이 보편자인지 술어인지 의견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식의 환원을 받아들인다. 스마트의 동일론은 매우 초기의 형태이다. 기능주의 중에서도 경험 심리학을 배경 이론으로 갖는 심리기능주의(Block 1980)와 신경과학에 기반을 둔 신경기능주의(Churchland 1986)는 개념 분석을 채택하지 않으므로 후험적 물리주의에 속할 수 있다.

김재권(Kim 1998, 2005)은 환원을 심신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보지만 사실 스마트류의 동일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동일성 자체는 일종의 설명일 수는 있으나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으며 심신 관계를 맹목적으로 만든다. 그 이유는 복수실현가능성과 설명적 틈새에 있다. 김재권의 국지적 환원은 복수실현가능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며 기능적 환원은 복수실현가능성과 결국에 연결되는 설명적 틈새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김재권(Kim 2001)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심성 인과와 의식의 문제가 서로 얽힌 ‘세계의 매듭(Weltknoten)’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문제는 결국 설명적 틈새에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많은 물리주의자들은 복수실현가능성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김재권의 배제 논증에 의해 비환원적 유물론이 영향력을 잃어 갔으며, 곧 이어 의식이 중심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기능주의는 자연스럽게 물리주의의 영역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능적 상태의 실현자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물리계 밖의 것일 리가 없다.

김재권(Kim 2005)은 의식의 복수실현가능성과 설명적 틈새를 연결 짓는다. 그리고 설명적 틈새 덕에 현상적 의식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명적 틈새를 포함하는 반물리주의 논증들에 더 취약한 것은 오히려 기능주의 또는 기능적 환원이다. 기능주의는 찰머스(Chalmers 1996)의 좀비 논증의 첫 단계인 좀비의 상상가능성과 양립이 불가능하다. 좀비는 나의 기능적, 물리적 복제인간이지만 오직 감각 질만을 결여하는 존재로 정의된다. 그런데 기능 분석은 감각질의 현상적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능 분석을 받아들이면 좀비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문제는 좀비가 수퍼맨, 해리 포터, 아이언 맨 등 픽션 속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논리적, 개념적 모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의식의 기능적 정의와 결합할

때 좀비는 모순을 함축한다. 따라서 좀비의 상상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¹⁷⁾

의식을 기능적으로 정의하여 아예 상상가능성부터 부인하는 선협적 물리주의와 비교 시 후협적 물리주의는 좀비 논증에 대해 보다 큰 저항력을 가진다. 후협적 물리주의자들은 이원론의 직관을 수용하여 좀비가 상상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상가능성이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함축 고리를 부정하는 작업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근본적인 것은 감각질이 곧 두뇌 과정임을 뒷받침하는 후협적인 환원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한 길이다. 또 하나는 좀비의 상상가능성이 현상적 의식에 관한 이원론적 직관에 의존하는데 이 직관이 물리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 신비를 해소하는 것이다. 후협적 물리주의자들은 후자의 접근을 취해 일단 이원론적 직관들, 즉 의식의 주관성, 설명적 틈새, 좀비의 상상가능성 등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물리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이들의 전략은 설명적 틈새를 인식론 차원에서 설명해 내는 것이다. 스마트가 동일론에 대한 반론들에 주었던 답이 후협적 물리주의자의 주요 전략을 잘 드러낸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의 화제중립적 분석도 감각의 특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어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다. 단지 인식, 개념, 언어, 뜻 차원의 이원론은 존재적 물리주의와 양립이 가능하다. 설명적 틈새가 인식적 문제일 뿐이라면 의식만이 환원이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기능적 환원을 채택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협적 물리주의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이론이다. 만일 후협적 물리주의가 대안이 된다면 굳이 우리의 직관과 거리가 있는 유명론이나 개별자 동일론, 4차원주의로 가지 않아도 된다.

물론 백도형은 이렇게 인식론적으로 의식의 신비를 풀어내려는 시도도 불만족스럽게 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존재론이기 때문이다. 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백도형은 바로 이 이유로 후협적 물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나 가정을 통한 비판은 기껏해야 “좋은 비판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냉소를 살

17) 한우진 (2008b).

지 모른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물리주의 논증이 인식적 접근을 취하는 상황에서 인식론 차원에서 신비를 해소하는 후험적 물리주의는 반물리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처럼 존재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론과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면 심성의 존재론도 이론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실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이론을 통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화제중립성은 환상일지 모른다.¹⁸⁾ 후험적 물리주의자의 성공적인 신비 해소 작업으로 설명적 틈새가 충분히 메워진다면 후험적인 환원 모델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도형은 속성의 존재론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서 주요 심신 이론들에 맞서 분투했다. 그러나 그가 그려 본 큰 그림에 후험적 물리주의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 필자는 기존의 주류 심신 이론들과 다른 존재론적 대안으로서 유명론을 고려하면서도 후험적 물리주의를 보다 심각하게 검토할 때라고 제안한다.

18) 한우진 (2008c).

참고문헌

- 김광수 (2003), 「심리철학과 정신의 자율성」, 『철학적 분석』 7호, pp. 1-27.
- 백도형 (2014), 『심신 문제』, 아카넷.
- 최훈 (2004), 「데이비드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백도형의 심신 유명론」, 『철학적 분석』 10호, pp. 79-110.
- 한우진 (2007), 「선형적 물리주의의 참을 수 없는 사소함」, 『철학연구』 79집, pp. 205-222.
- _____ (2008a), 「수반에 기초한 물리주의의 딜레마」, 『철학연구』 80집, pp. 133-154.
- _____ (2008b), 「좁비는 상상가능한가?」, 『철학적 분석』 17호, pp. 37-59.
- _____ (2008c), 「화제중립성과 물리주의」, 『철학연구』 83집, pp. 143-162.
-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N. (1980), “Troubles with Functionalism”, in Block, N.,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lmers, D. (1996), *The Conscious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Churchland, P. S. (1986), *Neurophilosophy*, The MIT Press.
- Davidson, D. (1970), “Mental Events”, in Block, N. (1980),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son, F. (1986), “What Mary Didn’t Know”, *Journal of Philosophy* 83(5): pp. 291-295.
- _____ (2000), *From Metaphysics to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The MIT Press.
- _____ (2001), “Mental Causation and Consciousness: The Two

- Mind-Body Problems for Physicalists”, in Gillet, C. and Loewer, B. (eds.), *Physicalism and Its Discont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vine, J. (1983),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4(4): pp. 354-361.
- Nagel, E. (1979), *The Structure of Science*, 2nd ed.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4): pp. 435-50.
- Perry, J. (2001), *Knowledge, Possibility, and Consciousness*, The MIT Press.
- Place, U. T. (1956), “Is Consciousness a Brain Proc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7(1): pp. 44-50.
- Smart, J. J. C. (1959),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Philosophical Review* 68(2): pp. 141-156.

논문 투고일	2017. 10. 29.
심사 완료일	2017. 11. 13.
게재 확정일	2017. 11. 13.

Are Properties Really Predicates?:

A Reply from an A Posteriori Physicalist to Tohyung Paik's
"The Mind-Body Problem"

Woojin Han

In *The Mind-Body Problem*, Tohyung Paik (2014) examines varied theories surrounding the notorious mind-body problem, including property dualism, eliminativism, and reductionism. He then criticizes all of them. He argues that the mind-body problem is unsolvable since we are still under the shadow of Descartes and take mental properties to be universals. Paik's alternative is nominalism or four-dimensional particularism. However, he neglects a posteriori physicalism which has been the most prominent response to Chalmers's zombie argument. It assumes that ontological reduction is the best theory that we have at hand and tries to explain away the mind-body problem which is found only in the epistemic level. I argue that we do not need to seriously consider nominalism or particularism when a posteriori physicalism is tenable.

Keywords: The Mind-Body Problem, Properties, Nominalism,
Consciousness, Physicalism, Tohyung Paik